

[로스쿨 소식]

법조윤리시험 역대 합격률 살펴보니... 올해 시험은 92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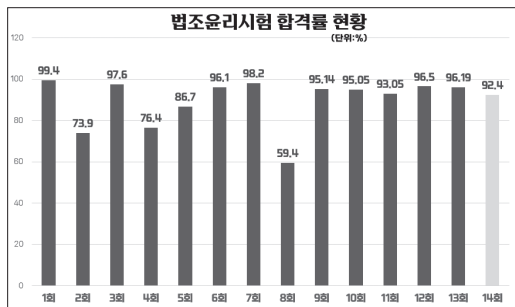
법무부는 14일 ‘2023년 제14회 법조윤리 시험’의 합격자를 발표했다. 이번 시험에는 총 2,131명이 응시했으며, 1,969명이 합격했다.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3.79%p 하락한 92.40%를 기록했다.

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,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. 합격기준은 만점의 70% 이상으로,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권에 들 수 있다.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.

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첫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99.43%에 달했으나, 제2회 시험에서는 73.96%까지 하락했다. 이후 3회에선 97.64%까지 상승하는 등 시행 초기에는 난이도가 급변했다. 특히 2017년에 시행된 제8회 시험의 합격률은 59.39%까지 하락하며,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. 2018년 제9회 시험부터는 90%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.

법무부는 제14회 시험 출제와 관련해 “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,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.”고 밝혔다.

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“법조윤리는 법조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기 때문에, 장차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체득해야 한다.”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.



(저작권자/로스쿨타임즈)